
한 인간의 유년시절은 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범죄자의 범죄 동기나 작가에게 쓰여지는 소설에서의 인물 배치와 표현되는 사고방식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속에 그 사람 손으로 쓰여지는 자신의 유년시절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의 향기(속성)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삶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유년시절을 시작으로 간략하게나마 나의 향기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나의 장래희망은 군인이었다. 키 1m 3cm. 두 살 위 누나가 있었는데 그녀도 같은 학년에서는 제일 작은 키를 가졌다. 나는 누나와 같은 학년인 형들에게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놀림을 받았다. 어디에서나 받게 되는 놀림이었지만, 쓰레기 당번이 되어 방과 후 소각장에 갈 때면 그 놀림은 귀만 괴롭히는데 그치지 않았다.

형들은 소각장 불길에 달군 굵은 철사로 내 가방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나보다 아래 학년 중 덩치가 큰 녀석과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정신없이 맞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뛰어왔다. 담 넘어 면사무소에 다니는 군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 상근인데도, 그 당시 험악하고 무서운 형들도 그 군인 앞에서는 쨍쨍 매는 모습 속에 나의 장래희망은 늙름한 군인이 되는 것이라고 꿈꾸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군인은 보이지 않았다. 새로 온 것 같은 군인은 험악한 형들과 친한 듯 했다. 6학년이 된 형들은 선도부원이 되어 또 다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8시까지 등교해서 수업이 시작되는 9시 20분까지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나날들이었다.

어느 날 방과후 교문 앞에는 험악한 형들과 함께, 문방구 건널목에 있는 고깃집 아이가 있었다. 한 학년 아래였지만, 고깃집 아이라서인지 덩치가 꽤 좋았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얼굴이며 머리며 정신없이 맞았고, 가슴조차도 답답했다. 어안 병병한 비웃음소리만 여기저기서 메아리 쳐왔다.

부시시 눈을 떴는데 쓰러진 곳에 큰들이 보였다. 일어났다. 형들에게 갔어야 옳은데 나는 그 녀석에게 갔다. 돌아오는 길에 혼자 자주 가던 동굴에 들렀다가 해가 질 무렵 집에 왔다. 잠이 오지 않았다.

교문에서부터 기분이 이상했다. 등교하는데 선도부 형들이 나를 모르는 체 했다. 매일 괴롭히더니 오늘은 서운하게 그냥 들여보내 주네. 교실에 들어섰는데도 이상했다. 늘 와서 귀찮게 굴던 형들 대신 예쁜 누나 선도부가 와 있었다. 교실 분위기도 이상했다. 자리에 앉은지 몇 분도 안돼 담임선생님이 찾는다고 교

무실로 가보라고 했다.

저번 소풍 때 김밥이며 양념갈비 공세로 아들을 사랑 받는 어린이로 만든 자모 회장님과 머리에 붕대를 두른 고깃집 아이가 있었다. 몇 바늘씩이나 꿰매셨단다. 우리 귀한 아드님께서....

저학년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누가 약자인줄 모르겠지만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사랑받는 어린이에게 폭력을, 그것도 돌처럼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다고, 그 선생은 나에게 폭력을 사용했고, 자모회장님의 헐리우드 액션을 보신 그 선생은 수업까지 빼 주시면서 복도에서 무릎 꿇고 의자 들고 있으라고 했다. 쉬는 시간마다 고깃집이 있는 동네 아이들과 형들은 벌을 서고 있는 나의 의자 사거리 너머에서 꺾떡됐다.

그 후로 나는 가방과 주머니에 몇 개의 돌을 넣고 다녔다. 무거웠지만 든든했다. 그러던 중 6학년이 되어서는 즐거웠던 것 같다. 험악 브라더스는 중학교로 올라갔고, 담임은 새로 부임 온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자모회장이나 육성회장의 양념갈비 맛을 아직 못 본 상태여서인지 내가 반장이 된 것에도 불만이 없어 보였다. 나중에 소풍 때 안 사실이지만 그는 갈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보였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2살 위인 누나 친구들과 반갑게 재회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칼을 지니고 다녔다. 내 자전거 안장을 칼로 긁어놓고 타이어를 뚫어놓기도 했다. 그러던 중 중학교에 와서 만난 동기 녀석과 칼들 앞에서 싸움을 했다.

시골에서는 난(蘭)을 기르는 화분에 물에 뜨는 가벼운 돌을 구하기 어려워서였는지 그냥 조그만 돌을 채워서 길렀다. 어느 순간 그 돌 화분이 날라왔고, 머리가 멍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어나보니 아무도 없었다. 자전거는 눕혀진 채 망가져 있었고 공중에 떠 있는 앞바퀴만이 빙그르 돌고 있었다. 무슨 생각에선지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라기 보다는 면단위 '파출소'였다. 입구부터 조용했다. 서장은 면장하고 조합장 불러서 고스톱 치러 다방에 가 없었고, 한 놈은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졸고 있고, 한 녀석은 나를 둘러보냈다. 그 후로 나는 경찰을 '짹새새끼'라고 부른다.

다음 날도 짹이 붙었다. 선생에게 걸렸다. 그 선생님은 형들을 꾸짖으며 내게 사과하라고 했다. 몇 해전 동창회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그에게 맥주병으로 복수해줬지만 그때 그들의 사과는 형편없었다. 그날 밤 동생에게 내가 크면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다. 키 145cm. 문교부 교원자격에 턱없이 모자란 키였다.

동생 얘기를 할까한다. 우리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옆집 순희와 비교해가며 꾸짖던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가족들 사이에선 그렇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은 나와 동생을 그렇게 비교해 오곤 했기 때문에 나의 정

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동생은 대단한 인재였다. 거북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동생은 군수를 모르는데, 군수는 동생을 안다.’ 소풍 때 양념갈비도 못 해다주는 우리 집에서 동생은 9년 동안 반장과 전교회장을 휩쓸었는데도 선생들은 동생을 좋아했고, 지금은 3형제가 동창이 된 고등학교에서는, 동생이 중 2가 되던 해부터 나는 교장실로 자주 불러 다니며 동생 덕에 물량공세와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교장은 나를 보면 항상 실실 웃어댔다. 진학실장도 그랬다.

집안 일가친척들도 그랬다. 고 3이 되던 해, 할머니께서 자살하시고 5일후 아버지께서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고 3인 나보다는 동생이 충격 받아 공부에 소홀해지지 않을까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당연히 나는 장남이라서 충격 받을 리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홀로 농사 짓는데 에도 허덕이고 계시는 어머니를 먼 곳까지 뵈셔서 장한 어머니 상을 주셨고, 빚에 짓눌린 가정 속에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동생은 3년 동안의 등록금, 기숙사비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기본이었고, 비싼 식비까지 면제받는 조건으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또 한번 주위의 입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토록 바라던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에 낙제했고, 전남대학교 자동차공학계열에 입학했다. 광주에서 아들 제법 공부시켰다는 5촌 고모는 자동차공학이 국책사업이라는데 높이 평가했고 어머니께서도 만족하셨다.

내가 일병 휴가를 나왔을 때 동생은 서울대에 합격했다. 많은 사람들은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옛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옛말은 맞는데 형이 형 노릇을 못한다고 하기도 했다. 문중에서도 문임이셨던 아버지의 장남인 나보다는 서울대 간 놈이 우선이었고, 몇몇 좋은 말하는 사람은 ‘이 집 애들은 착해서 다들 국립대만 다닌다.’고 조금은 나를 신경 써 주는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광주로 떠나와 살면서 그런 과거들과 떨어져 지내다보니 그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해대는지 모르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나는

일기를 쓰면서도 현재로 올수록 잘 정리되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표현을 해도 내 목표와 상황을 모두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나 가볍게 때론 무겁게 사용하는 두려움, 어두움, 좌절과 힘겨움이 깊어치 있는 보석이나 되는 것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내 삶의 목표를 정리해보고 보완 설계해 나가야할 레포트에 무언가 나의 삶을 단정지어버릴 것 같은 말들을 써내야 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다.